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질서 여/성/주/의 제 10대 총여학생회

98년 집행부 MT 안건지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야기의 순서를 정한 것입니다. 1998년 1월 8일)

1. 1년 사업 기획안

:대략적인 1년 사업에 대한 감을 잡도록 합니다.

2. 각국 기획안

: 각국 1년 사업 기획안을 참조로 1년 전체 사업 기획안과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3. 신입생 OT 기획안

:정확하게 나온 기획안은 없습니다. 총학에서 제안한 OT일정과 기획안을 참조로 얘기해 봅시다.

4. 행당동 토론회 행사

:우리의 첫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2월 13일 오후 2시 학생회의실에서. 총여학생회에서 발제문이 나와야 하고 전반적인 진행을 말아야 합니다.
(행당동 토론회 제안서 참조)

5. 자잘한 애깃거리

- ① 학생수첩에 우리내용 넣기
- ② 문과대가 돈 빌려 달래요!
- ③ 집부회의의 요일을 잡읍시다.
- ④ 세미나 합숙을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다면 날짜를 잡읍시다.
- ⑤ 자치단체 테이블 제안: 과연 언제로?
- ⑥ 해오름식:일정과 계획
- ⑦ 총학생회에서 집행부 함께 술마시기를 제안하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질서
여/성/주/의
제 10대 총여학생회 1년 사업 기획안

1.98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선거 당선의 흥분도 가라앉고 선거 당시 우리의 철학에 기반하여 약속했던 공약들을 이제 구체적인 사업으로 풀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이 공약들을 내걸었기 때문이 아니라 연세대학교 안에서 여성문화 창출의 시작이라는 느낌으로 우리들의 사업들을 재미있게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사실 이런 기본적인 철학과 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사업을 풀어나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2. 월별 사업 기획안

1월-① 집행부 MT (오늘밤 내일아침)

② 신입생 OT 준비시작 (OT 기획은 따로 이야기해봅시다.)

2월-① 확대운영 LT (2월 4일에서 6일까지. 개인적으로 우리의 세를 과시하고 총여 예산 5% 인상 목표 달성을 위해 가급적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② 세미나 합숙 (일정이 너무 팍팍한 관계로 다서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③ 신입생 OT 행사 진행 (2월 18일에서 20일까지)

④ 3.8세계 여성노동자의 날 행사 준비시작 (사회대 BEYOND에서 준비를 한다면 총여는 지원을 해 줄 수 있겠지만 하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자그마한 행사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3월-① 3.8세계 여성노동자의 날 행사 진행

② 여성제 준비 시작 (작년에 여성제는 3월 17일에서 21일이었지만 올해는 그렇게 일찍 하기는 무리일 것 같죠? 그러나 적어도 4월 중에는 치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4월-① 여성제 행사 진행

② 대동제 행사 준비 시작

③ 메이데이 행사 준비 시작

④ 미인대회 관련 행사 준비 시작 (이 모든 행사를 따로 해야 할지 결합시킬지 안 해도 될지를 결정한 이후에 행사 준비가 시작되어야 겠죠?)

5월-4월에 준비한 모든 행사 진행

6월-?

- 7월-취업간담회 준비 시작 (7월. 대략)
- 8월-① 취업간담회 준비 계속,
② 연고제 행사 준비 시작
- 9월- ① 연고제 행사 진행 ② 학생제.
② 여성문화 포럼 준비 시작
- 10월-① 여성문화 포럼 행사 진행
② 취업간담회 진행
③ 선거

3. 일정을 잡기 힘든, 그러나 꼭 해내야만 하는 사업들

- ① 성폭력 학칙 제정: 방학 중에 성폭력 학칙 제정 위원회를 띄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으나 대략 2학기 초 제정을 목표로 5월 정도까지는 학교와 쇼부를 봐야 10대에서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② 성폭력 전담 기구: 어떻게 할까요?(선거 자료집 참조) → 연세대의/김교장 대책위.
- ③ 호신술 강좌: 역시나, 어떻게 할까요?(또 역시, 선거 자료집 참조)
- ④ 페미니즘 카페(가칭): 문화/기획국의 사업 기획안을 참조로 이야기해 봅시다.
- ⑤ [연세여성](가칭): 편집국 혹은 편집위원회(준)의 사업 기획안을 참조로 이야기해 봅시다.

Seminar



1. 여성주의의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1) 여성주의적 연대를 실현하겠습니다.

- 현재 10여개에 이르는 학내 여성단체들과 미래의 여성단체들을 공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여성들의 모임은 전국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혼자입니다. 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외부 여성단체들과 타대학 여성단체들과의 공식적 통로를 개설하겠습니다.

2) 여성주의 정보의 DATA BASE를 만들겠습니다.

- 여성관련 서적을 수집, 정리하여 여성주의 서고를 만들겠습니다.
- 정신대, 성폭력, 여성문화(공연), 취업등의 정보 BANK를 만들겠습니다.

이
런
게
하
겠
습
니
다





2. 여성 스스로의 문화를 창조하겠습니다.

1) 여성의 일상 문화를 일구겠습니다.

- 여성문화 기획단을 구성하여 여성주의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놀이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 학생회관 여학생휴게실을 '여성주의 Cafe(가칭)'로 만들어 휴식의 공간뿐 아니라 일상적 영화상영, 전시, 공연,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여성도 운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 여학생이 수영장과 대강당 앞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운동을 즐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을 무력하게 만든 교육과, 남성의 시선으로부터의 불편함 때문입니다. 수영장과 체육육성실부터 여성만의 사용시간을 지정하겠습니다.

3) 여성임을 긍정하는 축제의 자리

- 여학생 주관을 여성문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 학내의 여성운동을 고민하는 자치단체, 여학생처, 여성학관련 수업등과 함께 여성문화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③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런
게
하
겠
습
니
다

1)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겠습니다.

- 현재의 형법상 규정은 가해자인 남성의 시점이 지배적입니다. 여성이 주체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겠습니다.

2) 성폭력 전담기구를 만들겠습니다.

- 성폭력사건 발생시 제정된 학칙을 운용하고 법자문 및 변호사 선임, 피해자 치유 상담 프로그램,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등, 학내 성폭력 전반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3) 여성을 위한 호신술 강좌를 개설하겠습니다.

- 현재 남녀 공동으로 개설된 호신술 강좌는 여학우들에게 필요한 성폭력 대처방안을 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호신술 강좌를 개최하고 장기적으로 교양강좌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4. 여성이 사회를 살아가는 길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 1)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성을 공론화시키겠습니다.
 - 남녀간의 성적 차이를 고민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성폭력에 대한 교육과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2) 여성의 취업현실에 기반을 둔 취업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소수 여성의 성공사례 위주의 형식적 취업간담회를 지양하고, 실제 취업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취업간담회를 준비하겠습니다.





5. '연세여성'을 독자적 여성언론으로 독립시키겠습니다.

- 이제까지 총여학생회 집행부의 기관지였던 '연세여성'을 여학우 개인들, 학내 여성 소모임들이 발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언론으로 제도화 시키겠습니다.
- 총여학생회 선거에 영향받지 않는 언론, 춘추나 연세지처럼 독립적 위상과 내용을 갖는 언론을 위해 독자적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
런
게
하
겠
습
니
다



제 10대 총학생회 예산 계획서

보내는 이 : 실패

총 수익 예상치 : 40,286,000

- ▶이월금 5,286,000
- ▶학생회비(5%가정) 30,000,000
- ▶여학생처 지원금 3,000,000
- ▶오리엔테이션 지원금 2,000,000
- ?장학금 ?

총 지출 예상치 : 40,280,000 (6천원남음)

- ▶지원금 10,000,000
 - 자치단체 기본 지원금 5,000,000 (자치단체당 40 X 5, 여학생회 (200)+α)
 - 기타 지원금 5,000,000
- ▶총여문화행사기획비 7,600,000
 - 카페관리비, 주기적 행사 기획비 1,600,000 (20 X 8)
 - 문화재 기획비 4,000,000 (200 X 2)
 - 기타, 적립금 2,000,000
- ▶도서구입 및 자료관리비 3,000,000
- ▶오리엔테이션 1,000,000
- ▶연세여성 10,000,000 (3천씩 6십만원)

20만원 (기본운영+행사비)
1-2학기
여학생회 (200)+α
애매해. 상생거. 동쪽. By. 물대

여학생 | 공대/상대/이과대
| 장도. 3학년. 노리당

- ▶복사비 600,000 (5 X 12)
- ▶통신비 300,000 (2.5 X 12) 나우. 하이텔. 한성세상
- ▶정기구독료 400,000
- 말=70,000 IF=30,000(한남) 한겨레=108,000 한겨레 21=120,000 기타적립 72,000
- ▶물품비 1,200,000 (10 X 12)
- ▶MT비 480,000 (8 X 6)
- ▶하드웨어구입비 2,000,000 (컴퓨터, 스쿠터 등 덩치큰 것)
- ▶*▶*항목 적립금 700,000 (5백씩 6십 8만원)

- ▶선거비 2,000,000
- ▶이월금 1,000,000 (3백만원)

자료학술부 기획안

발신자: 자료·학술부

수신자: 제 10대 총여학생회

◎ 1년 계획

1. 자료정리 및 도서구입 & 데이터 베이스화

-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정리
- 잡지 구입: 여성과 사회, If, 평등세상(?) *여성학 여성*
- 도서목록 작성 및 구입

2. 여성학 세미나 커리 뱅크(CURRI BANK) 구축: "모읍니다/드립니다"

- 여성학 수업과 관련된 커리 수집
- 신입생을 위한 여성학 커리 모음 및 배포(OT사업 중 하나)
- ▶ *목차* 또는 *타대 총여 등과의 자료 교환*

3. 통신상의 자료 이용

- 책임자가 수시로 통신상의 자료를 훑어보고 필요한 것을 '따운' 받는다.

4. 공개 세미나(?)

- 제 2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5. 논지방 자료실 활용 & 이과대 생활 도서관과의 연계

6. 학술제(?) *7-8월 계획*

- 그 동안의 여성운동은 주로 문화제의 형식을 띠고 나타난 듯한데, 2학기 즈음에 여성학 관련 학술제를 여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의 필요성과 의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이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의견을 말해주시길...

1. 단과과 자료 선정

◎ 방중계획

1. 2월말까지 대강의 데이터 베이스화를 ...번, 강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함.
2. 여성학 잡지 마련 & 목차 정리
3. 기본적인 도서구입- 철저한 보관과 운용 방안 고안(잠금장치, 대출장부 마련 등)
4. (OT와 관련하여) 신입생을 위한 여성학 커리 제공

평점국 → ~~학부~~ H.양생

1998년도 연세대학교 신입생오리엔테이션 기획안

발신: 35대 총학생회 사무국 기획부

수신: 중앙운영위원회

일시: 1998.01.05

1. 기획의도

하나, 신입생들에게 "다양한 사고와 행동,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서의 대학을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데에 있다.

하나, 학생자치질서의 근간이 흔들리는 가운데 학생회/동아리/소모임 등 학생자치질서의 새로운 도약을 예비하는 데에 있다.

2. 기획테마

"자유와 민주주의를 운영의 원리로 하는
자/유/대/학"

- 1>시대와 사회에 문제제기하는 실천적 지성으로서의 대학의 상,
- 2>다양한 사상과 학문, 문화가 넘쳐나는 대학의 상,
- 3>자발성과 창조성이 적극적으로 발현되는 대학의 상

3. 구성

1>총학생회기획행사

① "대학·대학생·역사" (가제)

-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형식
- 이 시대 실천지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선생님들을 감사로 모시고 진행한다.
- 역사 속에서의 대학과 대학생의 역할
- 예>신영복 선생님/정운영 교수님/백기완 선생님

② "1998, 자/유/대/학을 향해" (가제)

-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문화제
- 중운위 및 총학생회소개
- YBS와 연세 TV 소개 프로그램 포함
- 일시: 2월 20일 오후 2시~4시
- 장소: 대강당



✓ 2>총여학생회 및 여성자치 단체 기획행사

- 일시: 2월 20일 오후 1시~2시
- 장소: 대강당

3>동아리 연합회 주최 행사

- 중앙 동아리 소개행사
- 일시: 2월 19일 오후 1시30분~4시30분
- 장소: 대강당

4>각 단대학생회 및 반/과학생회 행사

- 일시: 2월 18일 오후 3시30분 이후~
- 장소: 각 단대 강의실 및 교정 곳곳

5>거리문화제-주최:총학생회

① 전시분야(학술분야/미술/설치물/소개)

- 일시: 2월 18일~20일
- 장소: 백양로 및 학관/민주광장

② 공연분야(풍물/노래/ROCK/극/춤/소모임 소개)

- 일시: 2월 18일 오후 1시~4시
- 장소: 백양로 삼거리 중앙무대
- 공연준비 및 구성:

(1) 설치된 음향과 무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한다.

(2) 거리문화제 참가신청을 미리 받는다.



4. 계획수립

<1>전체준비계획

①구성

- 총학생회 산하에 전체 O.T기획회의를 마련한다.
- 전체 O.T기획회의에는 각 단대학생회 실무주체 1인과 총학생회 1인과 동아리 연합회 주체 1인이 참여한다.
- 전체 O.T기획회의외에 <거리문화제>에 관해서는 동아리연합회 준비주체와 총학생회 문화국과의 별도의 테이블을 꾸린다.
- 중운위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무에 관해서는 각 단대 주체들과의 회의 테이블에서 집행을 담당한다.

②준비일정-<표1> 참조

<2>예산계획

- 내용: 세부계획서 작성시 별도의 예산서 첨부

●전체준비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월4일	5	6	7	8	9	10
	중운위					
	<OT 1차 기획서> 중운위 검토 및 각 국별 계획수립					
	동아리 일정확인 및 장소예약 준비					
	문화제 <1차 기획안>					
11	12	13	14	15	16	17
			OT 1차 기획 회의			
	<OT 2차 기획서> 제출 및 각 국별 세부계획서 작성					
	<OT 전체기획회의> 소집 및 실무준비					
	거리문화제 광고(통신/대자보) 및 참가신청 접수시작					
	강연회 강사섭외 시작					
	문화제 <세부 기획안> 제출 및 제안/섭외 시작					
18	19	20	21	22	23	24
	장소 및 행사규모/ 내용 확정-예산책정					
	<문화제>제작 및 연습 시작					
	자료집 세부기획					
25	26	27	28	29	30	31
2월1일	2	3	4	5	6	7
	거리문화제 참가 신청접수 완료 및 최종확정					
8	9	10	11	12	13	14
	강연회 및 문화제 팸플렛 제작 완료					
	OT 자료집 제작 완료					
15	16	17	18	19	20	21
			강연회	동아리 소개 행사	문화제	
			거리문화제	<문화제> 최종리허설		
	<문화제> 1차 리허설	<거리문화제> 무대 설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2	23	24	25	26	27	28
29						

● O.T. 전체일정 ●

	시 각	행 사 내 용	장 소
첫째날 (18일·水)	09:00~12:00	A: 학교본부주최행사	대강당
		B: 응원연습	체육관
	12:00~13:00	점심식사	식당
	13:30~14:30	【강연회】 -(대학, 대학생, 역사)-	백주년기념관
	13:00~16:00	【거리문화제】 -각 동아리 및 소모임 야외기획행사- <길놀이*노래공연*ROCK공연>	백양로 삼거리 중앙무대
	15:30 ~	각 단대기획행사 및 과/반별 상견례행사	각 단대
둘째날 (19일·木)	09:00~12:00	B: 학교본부주최행사	대강당
		A: 응원연습	체육관
	12:00~13:00	점심식사	식당
	13:30~16:30	동아리 연합회 주최 <동아리 소개 행사>	대강당
셋째날 (20일·金)	11:00~17:00	전공소개 및 교수님과 의 간담회	각 단대
		오강신청	
	12:00~13:00	점심식사	식당
	13:00~14:00	봉여학생회 기획행사	미정
	14:00~16:00	【문화제】 *1998. 카오대학을 향하여*	대강당
	16:00~	각 과 / 반별 행사 및 뒷풀이	각 단대

개설(10)
→ 다시(10)

1998신입생 오리엔테이션(안)

일시 : 1998.2.18(수)-2.20(금)

2.18 (수) 오전 09:00 - 12:00 대강당; A팀 - 학교본부행사

체육관; B팀 - 응원연습

점심 12:00 - 13:00

오후 13:00 - 16:30 학생행사

2.19 (목) 오전 09:00 - 12:00 대강당; B팀 - 학교본부행사

체육관; A팀 - 응원연습

점심 12:00 - 13:00

오후 13:00 - 16:30 학생행사

2.20 (금) 오전 09:00 - 11:00 수강신청 방법 안내(단과대학 시간)

11:00 - 17:30 수강신청

* 신입생 수련회가 오리엔테이션 다음주(2.25-27)에 있는 것을 감안하여 각 단과대학에서는 20(금)일 단과대학시간의 행사 비중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즉 09:00-11:00 사이에 각 학과(학부)소개 및 교수소개를 하실 수도 있고 생략 혹은 간편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a대학 ; 09:00-10:00 대학,학과,교수소개

10:00-11:00 수강신청 안내

b대학 ; 10:20-11:00 수강신청안내

c대학 : 10:20-11:00 대학소개 및 수강신청 안내

* 2.20(금) 단과대학별 모임장소와 행사내용 및 행사시간을 '98.1월 말까지 학생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민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에 대한 토론회와 행당지구 지지방문을 제안합니다.

수신 : 각 단대 학생회 및 여성 관련 단체
발신 : 여/성/주/의 제10대 총여학생회(준)
일시 : 98년 1월 6일

① 성폭력 → 도시빈민여성의 아 행당동 세대위.
사건경위, 근황상황 영대여성방문
② 방제 → 비정기적 성폭력, 빈민 여성을 탄압하는 또 하나의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③ 토론 → 청

0. 들어가며

지난 9월, 행당지구 강제 철거 당시 용역강패들에 의한 집단적인 성폭행이 일어났다. 이미 신문에 보도되었고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 사건은 사실상 그다지 새로운 일이 아니다. 탄압이 있는 현장에서, 진압이 있는 현장에서는 항상 성폭력이 난무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여성들에게 '폭력'이란 항상 성을 매개로 한 '성폭력'의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가부장제 사회의 순결 이데올로기 때문에 은폐되어왔던 성폭력을 고발하고 대응하기 위해 토론회와 지지방문을 제안한다.

1. 행당 지구 강제 철거 ^時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개요

賤活 發生

97년 9월 30일 오전 9시 경, 행당동 1-2 재개발 지구 철거 時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당일 행당동 강제 철거를 위해 재개발 조합과 철거 계약을 맺은 적준 용역 소속 철거강패 300명과 서울 지방 법원 동부지원에서 1일 고용원 200여명을 동원했고 외곽에는 성동경찰서 소속 병력 3개 중대가 배치되었다. 강제 철거 반대를 위한 외부 집회 참석으로 인해 대다수의 주민들은 지역 출입이 봉쇄된 상태였고 몇 분만에 집들이 철거되었다. 강제 철거에 항의하는 10여명의 여성들은 철거강패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죽을 날 받아 놓은 년아. 늙어 X도 못할 년이 주점떠네."라는 욕설과 함께 가슴을 걷어채고, 어느 여성은 옷이 다 벗겨진 채 속옷 바람으로 둘러나왔다. 아이를 업고 있던 또 다른 여성은 가슴을 물어 뜯겼으며 음부를 잡히는 수모를 당했다.

적준은 서울 지역 철거의 약 60-70%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로, 용역강패들을 동원해 이전에도 수십 차례 철거 주민들을 폭행한 일들이 있어왔다. 현재 적준은 고소에 들어간 상태이고 성동경찰서는 직무유기로 고소된 상태이다.

事實

도시빈민여성과
행당

2. 빈민 여성들을 탄압하는 또 하나의 무기

성폭력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권력이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여성이 대상화되는 속에서, 남성의 권력이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성폭력이 일상화되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일상화되어 있는 성폭력은 다른 권력과 결합되어 여성들에게 이중 삼중의 억압으로 작동한다. 즉, 용역강패들은 자본의 힘을 등에 업고, 전경들은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가하게 된다. 성폭력은 이들에게 여성들을 진압하기 위한 일종의 무기로 이용된다. 그들에게 지역 주민들은 탄압 받아야 할 빈민이며 노동자이며 그리고 또한 여성인 것이다.

우리는 5, 6공 시절, 학생과 민중 탄압 속에서 여성들은 단순한 폭력이 아닌, 성폭력을 당한 것, 현재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을 하나의 역사로 재구성하고 침묵의 고리를 끊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3. 토론회와 지지방문을 제안합니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은 여태까지 묻혀져 왔다. 신보수주의나 경제 위기나 국민대화합이니 앞으로 더욱 거세질 민중 탄압 속에서 성폭력을 읽어내는 것은 권력의 억압적 메커니즘을 더욱 치밀하게 대응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성폭력을 근절시키고 여성의 성적 자율권 확보를 위한 대대적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빈민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에 대한 토론회

일시 : 1월 13일 늦은 2시

장소 : 학생회관 4층 학생회의실

행당동 사건을 비롯해 그간 수도 없이 일어났던 공권력에 의한 성폭행, 용역깡패들에 의한 성폭행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입장을 정리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당지역 지지방문

일시 : 1월 4째 주

행당동 주민들을 만나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학생들이 이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나갑시다.

16일부터 전국 동계 빈활이 진행됨으로, 성폭력과 관련된 행당동 지지방문은 빈활 기간 이후가 됩니다.